

C7007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 공지 사항

1. 자산운용보고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거 자산운용회사가 작성하며, 투자자가 가입한 상품의 특정기간(3개월)동안의 자산운용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는 자본시장법에 의해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의 자산운용회사인 ABL생명보험이 작성하여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인 우리은행의 확인을 받아 판매회사인 ABL생명보험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됩니다. 다만 일괄 예약된 펀드의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확인기간은 일괄 예약된 날 이후 기간에 한합니다.
3. 자산은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의하여 투자일임 운용됩니다.
4. 각종 보고서 확인 : ABL생명보험 <http://www.abllife.co.kr/02-3787-7000>
 금융투자협회 <http://dis.kofia.or.kr>

1. 펀드의 개요

▶ 기본정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펀드 명칭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BE207		
펀드의 종류	변액보험, 추가형, 일반형	최초설정일	2016.05.13
운용기간	2020.10.01 ~ 2020.12.31	손속기간	취항으로 별도의 손속기간 없음
자산운용회사	ABL생명보험	펀드재산보관회사	우리은행
판매회사	ABL생명보험	일반사무관리회사	하나펀드서비스
상품의 특징	• 투자 목적은 글로벌 시장 내 채권을 대상으로 자산배분 전략을 사용하는 집합투자구에 투자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자본 이득과 이자 수익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 재산 현황

아래 표를 통하여 당기말과 전기말 간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순자산총액 및 기준가격의 추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백만원, %)

펀드명칭	항목	전기말	당기말	증감률
	부채 총액 (B)	1	1	-11.12
	순자산총액 (C=A-B)	3,243	2,704	-16.62
	발행 수익증권 총 수 (D)	2,924	2,396	-18.06
	기준가격 (E=C/D×1000)	1,109.12	1,128.62	1.76

※ 기준가격이란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입금(매입), 출금(환매)하는 경우 또는 분배금(상환금포함) 수령 시에 적용되는 가격으로 펀드의 순자산총액을 발행된 수익증권 총액수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

2. 운용경과 및 수익률현황

▶ 운용경과

4분기 금융시장은 재정, 통화, 정치, 백신 등과 관련된 대형 이벤트들이 급변하면서 높은 변동성을 유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초안화적인 통화정책으로 마련된 풍부한 유동성 하에서 미국의 재정부양책 기대감과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이 위험자산 선호심리를 자극함에 따라 금융시장 전반이 위험자산 선호 방향으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 펀드도 커브 측면에선 소폭 마이너스가 발생하였으나 높은 이자 수익과 함께 스프레드 축소로 인한 큰 폭의 자본차익으로 해당 손실을 상쇄하면서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였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주요 중앙은행들이 자산매입 추가확대, 기간 연장 등 완화 기조를 더하면서 기존의 풍부한 유동성 환경을 한층 더 높여 놓았습니다. 적어도 올해까지 초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이 다소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재정 차원에서 유럽의 공동부채 발행, 공동예산 집행, 미국의 추가 부양책 최종 합의 및 승인이 이뤄지면서 소득 및 고용 측면의 안정성이 높아졌으며 주요 기간산업 경기 안정성도 높아지는 등 통화, 재정 정책 측면에서 모두 위험자산 가격을 지지하였습니다. 다만, 대규모 재정부양정책은 국제 발행을 통한 수급 우려를 높인다는 점에서 국제 금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시사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도 했으나, 결과적으로 바이든 당선인 압승, 트럼프 대통령 승복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을 가장 크게 바꾸어 놓았던 이벤트 중 하나는 주요 제약사들의 코로나 백신 임상 결과 발표, 각국 승인 및 접종 시작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간 강세를 보이지 못했던 여행, 항공, 리테일 섹터의 강세가 두드러졌으나, 변종 코로나 발생, 코로나 재확산세 급격화 등 당장의 코로나 문제가 더 크게 작용하면서 위험자산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 또한 커졌습니다.

▶ 투자환경 및 운용 계획

연방준비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에 회의적이고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백신 접종이 가속화되고 있어 경기 정상화와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올해 시장의 금리 전망은 상승 방향으로 잡혀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미국 상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점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에 힘이 실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이 약속한 6,000억 달러 내외의 추가 재정정책은 빠른 기간 현실화될 것이나 바이든 행정부 정책 우선 순위에서 증세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재정정책만 고려할 경우 금리 상승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향후 증세나 특정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이 소비 및 기업 경기를 억누를 경우 금리 상승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정지출 확대에도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10년 금리 상단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화된 경제활동 중단으로 실업자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고 적지않은 비중이 영구 실업에 마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메이저 지표 상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만 11만 개의 식당이 문을 닫는 등 소상공인 경제력 훼손이 큰 상황입니다. 이 같은 침체가 일시에 회복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결국 금융, 실리지표는 회복하였으나 실물경기는 2021년에야 점차 회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앙은행들의 완화적 통화정책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크레디 면에선, 작년 기업들이 대규모 차입, 배당 축소를 선제 진행하여 축적된 예비 유동성이 많단 점에서 회사채 추가 발행이 제한될 것입니다. 또한, 팬데믹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정부 지원의 유지 가능성도 높단 점을 고려하면 회사채 전망은 우호적입니다. 다만, 국제와의 금리차가 크게 줄어 추가 축소 가능성이 낮은 고등급 채권일수록 국제 금리에 연동될 가능성이 높아진단 점에서 중목 선별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 기간(누적)수익률

(단위 : %)

구분	최근 3개월	최근 6개월	최근 9개월	최근 12개월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1.76	2.80	7.23	3.23

※ 비교지수(벤치마크) : 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위 : %)

구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글로벌다이나믹채권재간접형	3.23	10.29	9.10	-

※ 비교지수(벤치마크) : 동 펀드는 벤치마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위 투자실적은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손익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손익 합계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전기	0	0	0	29	0	0	0	0	0	0	-3	26
당기	0	0	0	57	0	0	0	0	0	0	-3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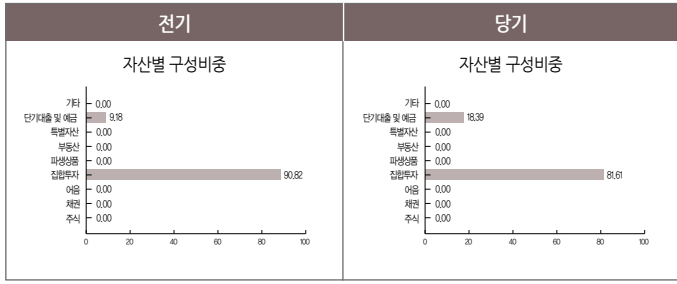
3. 자산현황

▶ 자산구성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 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1.00)	0	0	0	2,208	0	0	0	0	0	497	0	2,705
	(0.00)	(0.00)	(0.00)	(81.61)	(0.00)	(0.00)	(0.00)	(0.00)	(0.00)	(18.39)	(0.00)	(100.00)
합계	0	0	0	2,208	0	0	0	0	0	497	0	2,705

※ () : 구성비중



▶ 환헤지에 관한 사항

환헤지란?	환헤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위험을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줄이는 것을 말하며, 환헤지 비율은 기준일 현재 펀드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 외화자산의 평가액 대비, 환헤지 규모를 비율로 표시한 것을 말합니다.
펀드수익률에 미치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이 하락할 경우 (원화강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하락분 만큼 환 평가손실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이익이 발생합니다. -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약세) : 펀드내 기초자산은 환율 상승분 만큼 환 평가이익이 발생하나, 상대적으로 환헤지로 인해 환헤지 비율 분만큼의 환헤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 환헤지를 통하여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해당 펀드 수익률이 환율변동위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어 펀드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위 : %, 백만원)

투자설명서 상의 목표 환헤지 비율	기준일(20.12.31)현재 환헤지 비율	환헤지 비용 (20.10.01 ~ 20.12.31)	환헤지로 인한 손익 (20.10.01 ~ 20.12.31)
100	99.8	환헤지 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이 불가능하며 환헤지로 발생한 손익 사항 역시 환율 변동에 따른 자산가치의 상승하락과 상응 하는 환헤지 손익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환헤지 비용은 통화선물거래에 따른 수수료이며, 선도환거래의 경우 수수료가 계약 환율에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단위 : %)

구분	종목명	비중	구분	종목명	비중
1	미래에셋글로벌라이프 증권자(채권)F	81.61	6		
2	단기상품 은대(우리은행)	18.39	7		
3			8		
4			9		
5			10		

■ 각 자산별 보유종목 내역

▶ 집합투자증권 (단위 : 죄수, 백만원, %)

종목명	종류	설정원본	순자산금액	발행국가	통화	비중
미래에셋글로벌라이프 증권자(채권)F	채권형	2,131	2,208	대한민국	KRW	81.61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 단기대출 및 예금 (단위 : 주, 백만원, %)

종류	금융기관	취득일자	금액	금리	만기일	발행국가	통화
예금	우리은행	2016-05-13	497	0.23		대한민국	KRW

※ 투자대상 상위 10종목 및 평가금액이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기재

4. 투자운용전문인력 현황

▶ 투자운용인력(펀드매니저) (단위: 개, 백만원)

성명	직위	나이	운용중인 펀드 현황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및 일임계약 운용규모		협회등록번호
			펀드개수	운용규모	펀드개수	운용규모	
최미영	부서장	41	78	2,646,562			2119000125
이대석	차장	38	78	2,646,562			2120001220
김태현	과장	37	78	2,646,562			2119000109
최명혁	사원	28	78	2,646,562			2119000110

※ 성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이 책임투자운용인력이며, '책임투자운용인력'이란 투자운용인력 중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함.

※ 펀드의 투자운용인력 변경내역 등은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사이트의 수시공시 등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http://dis.kofia.or.kr>) 단, 협회 전자공시사이트가 제공하는 정보와 본 자산운용보고서가 제공하는 정보의 작성기준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운용전문인력 변경내역

기간	운용전문인력
2019.01.25 ~ 현재	최미영
2020.09.17 ~ 현재	이대석
2019.01.24 ~ 현재	김태현
2019.01.24 ~ 현재	최명혁

5. 비용 현황

▶ 업자별 보수 지급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전기		당기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산운용사	0	0.00	0	0.00	
판매회사	3	0.10	3	0.10	
펀드재산보관회사(신탁업자)	0	0.00	0	0.00	
일반사무관리회사	0	0.00	0	0.00	
보수합계	3	0.11	3	0.11	
기타비용	0	0.00	0	0.00	
매매 총개수수료	단순매매 · 중개수수료	0	0.00	0	0.00
	조사분석업무 등 서비스 수수료	0	0.00	0	0.00
	합계	0	0.00	0	0.00
증권거래세	0	0.00	0	0.00	

※ 펀드의 순자산총액(기간평균) 대비 비율을 나타냅니다.

※ 기타비용이란 회계감사비용, 증권 등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펀드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서 매매·중개수수료는 제외하였습니다.

※ 성과보수내역 : 해당 없음

※ 발행분담금내역 : 해당 없음

▶ 총보수, 비용비율 (단위 : 연환산, %)

	총보수 · 비용비율(A)	매매 · 중개수수료 비율(B)	합계(A+B)
전기	0.4484	0	0.4484
당기	0.4484	0	0.4484

※ 총보수비용비율(Total Expense Ratio)이란 운용보수 등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총 보수·비용비율을 나타냅니다.

※ 매매·중개수수료 비율이란 매매·중개수수료를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눈 비율로서 해당 운용기간 중 투자자가 부담한 매매·중개수수료의 수준을 나타냅니다.

‘글로벌라이프증권재간접형’의 경우 펀드의 운용규모의 법적 기준 소규모상태(50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운용시 분산투자가 어려우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당사에 의거하여 항후 불가피하게 임의혜지를 통해 경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92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 223조 제3호 및 제4호)